

十

韓國의 크리스마스 쉘 野話 16

—다시 쉘 제조는 민간업체로—
(1965-1967年度 發行分)

이창성/크리스마스 쉘 동호인, 수집가

1965년

1. 특 징

이 해 쉘의 특색은 항결핵 기금조성을 위한 쉘의 판매를 위하여 쉘칩의 발행, 포스터의 제작, 관촉인쇄물의 제작 등 매우 다양한 광고물이며, 특히 대서특필 할만한 것은 대한결핵협회 발족이래 유일무이(有—無二)의 쉘칩의 발행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던 쉘을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함이었음인지 이름도 알 수 없는 일반 인쇄소에서 제조를 한 까닭에 종이, 천공상태, 색도 등 인쇄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쉽다.

2. 도 안

당시의 보건세계(1965. 6월호)에는 십



민속 속의 동물

장생(十長生)중에서 사슴, 거북, 원앙, 학을 주제로 도안했다고 되어 있으나 십장생은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 초, 거북, 학, 사슴을 일컫는 것으로 원앙새는 부부의 금슬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새로서 십장생에는 속하지 않는다.

아무튼 4종의 동물을 이화여대 미술과장인 이준(李俊)교수가 도안을 했는데 거북도안은 일견 공작새로도 보이는 난해한 도안이지만 적색으로 거북의 머리와 네다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거북의 복십자는 바탕색이 적색인 관계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식별이 힘든 아쉬운 도안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민속화의 아취 넘치는 채색 등은 특이한 쉘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배색에 있어서 약간의 난색이 있는 쉘이다.

3. 발행량과 판매실적

발행량은 1,000만매로서 730만매가 팔렸으니 73%에 불과하나 전년에 비하면 급신장한 실적이라 아니할 수 없으

며, 이는 오로지 협회의 사전 홍보에 기인하는 듯하다.

4. 전 지 (10×5=50매)

점공 천공이 상하, 좌우변지까지 되어 있는(우취용어로 장발, 하발, 좌발, 우발이라고 함) 50매 썰로서 상부 변지에는 <크리스마스 썰은 결핵예방의 뒷바침>이라는 문구가 지난 해에 비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4방변지에 농청색인 동일한 색채로서 여러가지 문구가 들어있는 것이 특색이다.

5. 썰첩의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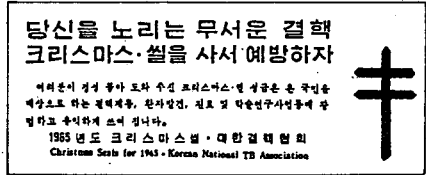
대한결핵협회 창립이후 획기적인 썰첩이 발행되었는데, 팬(PANE)은 해주 썰첩처럼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지의 가운데를 뜯어낸후 다시 위에서 2열씩 뜯어내어 5×2=10매 썰 PANE의 좌,우 변지에 호치켓으로 편철을 하였다.

표지는 얇은 모조지에 복잡자 마크와 안내문구를 인쇄 하였는데, 복잡자 마크도 좌측과 우측에 있는 2종류의 표지를 인쇄하여 복잡자.마크쪽에 철을 하였다.

PANE의 수는 10매가 보통이나 20매인 것도 발견되었으며, GREEN CATALOGUE에는 25매 철이 있다고 하나 미확인으로서 표지에 판매가 또는 썰의 매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증정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썰첩의 발행량도 알 수 없으며, 30년대에 발행된 썰첩들보다도 매우 희귀하여 입수가 힘들다.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어 40년 가까운 오랜 세월동안에 썰첩이 단 한종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PANE마저도 특별히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아쉽다.

셔우드 홀은 9년동안에 특별히 제조된 썰첩의 PANE을 만들었으며, 무려 13종이나 발행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매우 아쉬움이 많은 썰첩이라고 할 수 있다.

6. 포스터 및 리프렛의 발행

발행된 썰 4종 중에서 사슴도안을 확대하여 267×383mm의 크기에 3색 평판 인쇄인데 썰과 틀리는 점은 상부에 <당신을 노리는 무서운 결핵 크리스마스 썰을 사서 예방하자!>라는 호소문과 왼쪽 하부에 <대한결핵협회>의 글이 들어 있다.

이 포스터는 58,000매가 인쇄되었다고 하며, 포스터는 1954년부터 발행을 시작하여 1955, '57, '58년의 3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행되었다고 하나 당시 이러한 인쇄물을 소홀히 여겨 수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입수는 매우 힘들다. 또한 1955년부터 발행한 리프렛은 1957, '58년에는 발행되지 않았으며, 외국의 우표상에서 우연히 발견되면 무상으로 얻을 수 있다고하나 우표상에서 이러한 것이 발견되면 버리고 만다니 이것도 입수가 힘들다.

호소문은 포스터와 동일하며 166×



104mm의 크기로 색색은 썰의 올리브색 부분이 담청색으로 되어있다.

7. 오 작 (ERROR)

GREEN CATALOGUE에는 썰 2종이 세로쪽 사이에 천공이 되어있지 않은 무공이 있다고 하나 미발견이며, 일반 인쇄소에서 제작한 관계로 이러한 천공이라는 흔히 있을 수 있으며, 풀칠한 뒷면에 인쇄된 (BACK PRINT)것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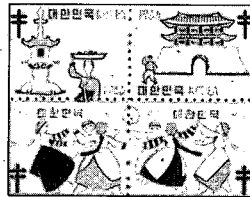
8. 각종 자료 (DATA)

구 분	내 용	비 고
발행년도	1965년	
도안내용	시승, 거북, 원앙, 학	
종 수	4종	
도안자	이 준	
인 면	20×25mm	
천 공	단식점공 12	
색 색	3도	
판 식	평판	
전지구성	10×5=50매	
썰 첩	5×2=10매 (50 썰)	(좌, 우에 철한 2종 있음)
판촉봉투	?	
판매가액	5원	
인쇄소	미 상	
발행매수	1,000만매	
판매실적	730만매	

1966년

1. 도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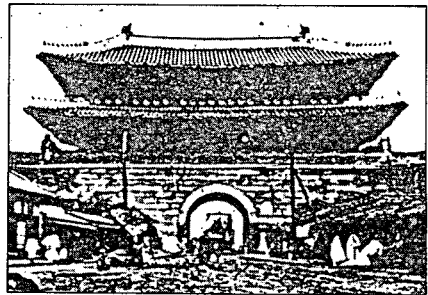
썰의 크기가 현재의 보통우표처럼 소형화되면서 두 가지의 소재를 매우 동적으로 표현하였으며, 2매의 썰에는 강강수월래와 다른 2매에는 다보탑과 남대문 사이에 과일을 머리에 이고가는 여인과 남자를 배치하였고, 각각 도안의 사이에는 원이 있는데 이는 달과 해를 나타낸 듯 하다.



강강수월래

매우 유머스런 도안의 썰은 노래소리와 음악이 들려오는 듯한 소품으로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전달하는 좋은 도안이나 색도가 단조로운 것이 아쉽다.

그러나 1932년 최초의 썰인 남대문 도안이 34년만에 다시 등장한 것은 감회가 새로우며, 남대문 사진과 대조해 볼도 좋을 듯 하다.



1967년

2. 발행량과 판매실적

발행량은 1,540만매로서 판매실적은 82%인 1,262만매이니 씬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이 점점 깊어 가는 것이 숫자상으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3. 전 지

점공 천공으로 전년도와 같이 상하·좌우에 천공이 빠지고 있으며, 12½의 단식천공인데 도안이 교차하는 것이 특색으로 인쇄소는 미상이나 전년도와 동일한 인쇄소라 추측할 수 있다.

변지 상부에는 <결핵예방을 위하여 크리스마스 씬을 삼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씬은 적색으로 인쇄하여 강조하고 있는 듯 하며, 하부에는 영문으로 "대한결핵협회"가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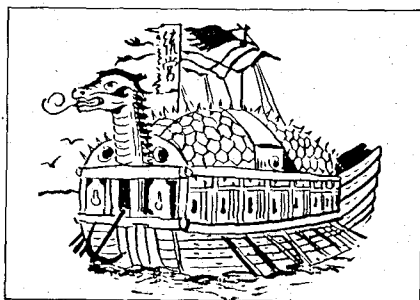
4. 각종 자료 (DATA)

구분	내용	비고
발행년도	1967년	
도안내용	강강수월대, 다보탑과 남대문	
종 수	4종	
도 안 자	권순형	
인 면	25×18mm	
천 공	12½ 단식점공	
쇄 색	3도	
판 식	평판	
전자구성	10×10=100매	
판축봉투	?	
판매가액	5원	
인쇄소	미상	
발행매수	1,540만매	
판매실적	1,262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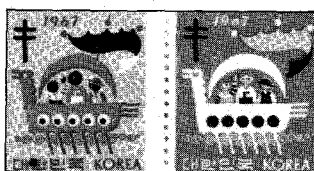
1. 도 안

셔우드 홀이 처음 발행하고자한 도안이 거북선이었으나 당시 일본관헌의 허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으로 결핵에 대한 공격에서 방어로 바뀌어 남대문이 채택된 것은 <야화.1>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뜻깊은 거북선 도안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씬에 나타났으나 당시 셔우드 홀이 묘사하고자한 거북선의 위용에 비하여 거북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간결한 도안으로 1932년에도 이러한 도안이었던다면 일본관헌의 허가를 얻을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된다.



명년(1992년)이 임진왜란 발발 400주년 기념의 해이니 셔우드 홀이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거북선을



거북선

씰상에 살려보는 것도 뜻이 있을 듯하다.

아름든 이해의 씰은 서울미대 김교만 교수에 의하여 도안됐는데, 거북선 안에 민속적 단장을 한 세사람의 인물을 그려 넣고 같은 도안에 색도를 바꾸어 2종의 씰을 발행하였다.

2. 발행량과 판매실적

발행량이 1,100만매에 판매실적은 무려 98%인 1,028만매이니 이에 따른 연말의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씰의 사용이 많았으리라 추측되지만, 의외로 연말의 우편물에 씰이 첨부된 실체봉투(우취용으로 ENTIRE라고 함)는 적은 편이다.

이는 국민의 경제수준이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홍보도 활발하였지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아직도 관공서 및 학교와 일반기업체에 강제(?)배당으로 판매 실적만 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전 지 (10×10=100매)

씰의 크기는 전년도와 같으며 100매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도안이 세로형으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도안이나 색도만 변경한 2종의 씰을 지그재그로 배치하였다.

상부중앙의 호소문도 전년도와 같으나 획기적인 것은 제조 인쇄소가 밝혀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1965년 및 1966년의 씰도 같은 인쇄소에 제조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지만 확인할 수 없다.

천공은 점공으로 되어있지만 빗형이 아닌 단선천공으로서 요즘의 우표천공처럼 정교하고 아름답지는 못하다.

4. 각종 자료 (DATA)

구분	내용	비고
발행년도	1967년	
도안내용	거북선	
도안자	김교만	
종수	2종	색도만 바꾸어 발행
인면	18×22mm	
천공	점공단식12½	
쇄색	4도	
판식	평판	
전지구성	10×10=100매	
관촉봉투	?	
판매가액	10원	
인쇄소	서울인쇄 주식회사	
발행매수	1,100만매	
판매실적	1,078만매	

참고문헌

- 1). GREEN WORLD SEAL CATALOGUE, The christmas seal and Charity stamp society, Chicago, U. S. A. 1983, by Henry Irwin
- 2). 대한결핵협회 30년사, (1983-대한결핵협회 발행)
- 3). 원색한국우표도감 (1991-우문관 발행)
- 4). 세계의 크리스마스 씰 도감 (한국편), (1989-대한결핵협회 발행)
- 5). 보건세계 (1965-1967년 발행분-대한결핵협회 발행) †

우표옆에 씰 한장
이웃위한 작은정성